

# 감성과학에 대한 철학적 논의\*

## Philosophical Discussion on the Science of Emotion and Sensibility

### - 감성적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 Under Aspect of Sensitive Cognition

김 광 명\*\*

Kwang-Myung Kim

**요 약** 학제간 연구의 방법과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감성과학에 대한 철학적 배경을 논의하고 탐구하는 일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서구사상에서 인간의 인식능력은 감성과 이성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뉘어 온 터에 그것에 관한 전체적인 모습은 그 상호관계를 모색하는 일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성의 감성화나 감성의 이성화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 데, 이는 '감성적 인식의 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이다. 감성적 인식은 논리적 인식에 비해 저급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여태까지 논리적 인식이 수행하지 못했던 세계인식의 폭을 유비적 관계에서 확장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칸트적인 맥락에서 미적 판단 혹은 감성적 판단은 논리적·개념적 판단을 보충한다. 공통감에 근거를 둔 인문학의 지평에서 감성의 문제를 자연현상의 관찰에 토대를 둔 과학적 객관성에 까지 높여, 아울러 그 한계를 지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감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특히 감성공학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들면, 음향과 촉각의 관계라든가 감관기관의 자극에 대한 심리측정 또는 감성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소비자 심리연구 영역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원래 감성(Sensibility, Sinnlichkeit)은 근대 서구의 철학에서 이성(실천이성) 또는 오성(좁은 의미의 이성, 즉 이성이성)과 더불어 인간의 대표적인 인식능력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 이성이성은 자연현상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며, 실천이성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바탕을 둔 실천적 인식이다.

전통적으로 서양철학에서의 감성문제는 이성과의 관계속에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우리가 대개 사용하는 이성이라는 용어는 이성이성을 일컫는다. 이성은 개념을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이것을 토대로 세계를 인식한다. 감성은 이성의 자발성에 비하여, 감각을 매개로 하여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능력, 즉 수용성을 지니며,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인간과 대상세계를 이어주는 원초적 유대로서 인간생활의 기본적 영역을 최초로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감성에 의해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오성에 의해 대상은 우리에게 사고된다. 인간인식의 대상들을 주어지도록 하는 조건으로서의 감성은 인식의 대상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조건인 오성보다 앞서 있다.<sup>1)</sup>

세계의 본질이나 근원을 묻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 본 논문은 1997년 6월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감성과학회 창립총회의 주제강연으로 발표한 글을 보완한 것임.  
\*\* 숭실대학교수, 철학  
E-mail : kmkim@saint.soongsil.ac.kr

1) I.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이하 K.r.v.로 표시), Hamburg: Felix Meiner, 1956, A.16.(관례대로 초판은 A, 재판은 B로 표시함.)

서는 감성의 독립된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정신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고, 정신의 관점에서 파악하려 한다.<sup>2)</sup> 이론적 인식에 있어서 감성은 이성적 사고를 위해 감각적 소재를 제공하고, 실천적 도덕적 생활에 있어서는 이성이념의 일방적인 지배를 받으며, 미적 인식에 있어서는 자신의 순수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인간적 삶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감성은 인간 인식능력의 여러 영역을 매개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지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오늘날 學際間 연구와 접근방법이 다변화되는 추세 속에서 감성학 혹은 감성과학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흔히들 말하는 감성과 이성의 이분법적 사고위에서 이성주의나 감성주의를 나누는 일은 인간인식의 全面貌을 그르치는 일이 될 것이다. 감성과 이성의 진정한 관계를 이성의 감성화나 감성의 이성화라는 상호연관속에서 도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문맥적 관점에서 보면, 이성과 감성은 인식체계에 내재한다. 인간경험의 문맥적 이해란 감성의 이성화이다. 어떠한 감성적 경험도 언어적인 것이고 그리하여 어떠한 감성도 이성화의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예술에 대한 언어적 접근도 좋은 예라 할 것이다.<sup>3)</sup> 감성의 활동을 통해 인간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과 직접 만나게 되며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이는 특히 문화예술의 場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는 감성의 문제를 인식의 관점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인식은 곧 대상인식이요, 세계인식이다. 이 때, 감성을 근거로 하는 미적 판단은 논리적 판단과 어떻게 다르며, 또한 그것은 어떠한가 할 것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 2. 감성적 인식의 학

감성론 혹은 감성학(Ästhetik)이란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되는 것에 관한 이론이다.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되는 것은 곧 감성적인 것으로서, 개념적 사고에 의해 파악된, 명석판명환이성적인 것에 비해 혼연하고 저급한 것으로 용인된다. 라이프니츠(G. W. Leibniz:1646-1716)나 볼프(Ch. Wolff:1679-1754)의 흐름을 이어받은 바움가르텐(A. G. Baumgarten

:1714-1762)에 이르러 이성적 인식에 관한 학인 논리학(Logica)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감성적 인식의 학인 감성학(Aesthetica)이 등장하게 되었다. 논리학의 중심문제가 진위판단을 전제로 한 眞의 문제라면, 감성학의 인식목표는 궁극적으로 美인 것이다.

추상적 사고를 통해 얻어지는 이성적 인식에 대해, 감각이나 지각등 사물의 직접적 작용에 의해 주어지는 대상인식을 감성적 인식이라 한다. 감성적 인식은 감각, 지각, 표상이라는 세가지 형태로 구별된다. 감각은 사물이 감각기관에 미치는 작용의 결과로 얻어지는 대상의 개별적 특성의 像이다. 지각은 이러한 감각의 복합으로 얻어지는 대상의 객관적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서, 이를테면 공간지각, 시간지각, 운동지각등을 말한다. 감성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추상적 사고를 통해 이성적 인식으로 나아가며, 인간의 인식은 이 양자의 끊임없는 상호전환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

인간의 감성적 영역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특히 근대미학의 성립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감성적 능력이 오성에 비해 열등하고 일시적이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오성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념적 보편성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감성적 주체의 정립은 수학적으로 틀지워진 협소한 이성개념으로 인간을 규정하려는 추상적 합리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감성의 학으로서의 미학은 추론적인 사유능력인 오성과는 다르며 하위인식능력이다. 그럼에도 오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보편적인 가치영역을 담당하는 자율성을 지닌다. 바움가르텐에 있어 유사 이성으로서의 감성학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영역과 이성적 합리성의 영역을 매개하고 결합한다. 이런 점에서 감성적 능력이 오성보다 저급한 능력이라기 보다는 미적 인식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학의 어원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감성(Sinnlichkeit)이나 '감성적인(aesthetisch)'의 의미에는 감각, 상상력, 감정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sup>4)</sup> 또한 미학을 뜻하는 라틴어 학명인 에스테티카(aesthetica)는 '느끼다, 감각하다'는 뜻을 지닌 희랍어, 아이스타노마이(aisthanomai)에서 유래했다. 희랍철학자들은 감각된 것들(aistheta)과 사유된 것들(noeta)을 엄격히 구별했다. 감성학(에스테티카)이

2) 막스 필러/알로이스 할더, 철학소사전(강성위 역), 이문출판사, 1988, 14쪽.

3) 정대현, "감성의 이성화", 정대현 외 저, 감성의 철학, 민음사, 1996, 15쪽.  
N. Goodman, Languages of Art, Indiana, 1976.

4) Artikel, Ästhetik, ästhetisch,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hrsg. v. J. Ritter, 1971, Bd. I, 555쪽.

대상으로 삼는 감성이란, 외적 대상에 관련하는 감각(sensus) 뿐 아니라, 상상력(phantasia), 통찰력(perspicacia), 기억력(memoria), 虛構로 무엇인가를 빚어내는 능력(facultas fingendi), 예견력(praevisio), 판단력(judicium), 예언력(praesagitio) 및 기호능력(facultas characteristic)을 포함하는 이른바 저급한 인식능력 일반을 말한다. 감성적 인식의 學인 미학은 감성적 인식을 개념적 인식, 즉 오성에 의한 판명한 인식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판명한 인식과는 다른 원리를 갖지만, 바움가르텐은 이를 '유사이성의 학(ars analogi rationis)'<sup>5)</sup>이라 부른다. 이성을 유비적으로 감성에 적용한다는 말이다.

데카르트(R.Descartes:1596-1650)에 의하면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주체에게 있어 이성적 진리란 명석하고 판명한 인식을 말한다. 명석하다는 것(claritas)은 '주의를 기울이는 정신에 現前하여 명백한 것'이며, 판명하다는 것(distinctio)은 '명석하면서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며 그 자신안에 명석한 것 이외의 아무 것도 포함하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감각, 감정, 상상과 같은 것들은 오류의 원천이 된다. 또한 라이프니츠에 있어 인식이란 판명성의 정도에 따라 최하의 어두운 단계로부터 최상의 신적 인식의 단계에 까지 연속적인 서열을 이루고 있으나, 이런 단계는 편의상 설정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데카르트에서처럼 우리들의 의식위에 떠오르지 않는 표상이라 하여, 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함은 잘못이다.<sup>6)</sup>

감성적 인식의 학인 에스테티카는 감성적인 표상, 즉 판명하지 않고 혼연한 표상 전체의 학문이다. 판명한 표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은 논리학이다. 바움가르텐이 말하는 혼연함이란 어떤 사태의 표정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표정들이 서로 긴밀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말이다. 볼프는 감각(sensus), 상상력(imaginatio), 詩作能力(facultas fingendi), 기억(memoria)은 인식능력의 하위부분에, 주의깊음(Aufmerksamkeit), 반성(Reflexion), 비교(Vergleichen), 추상(Abstraktion)의 능력들은 오성에 속한다고 한다.<sup>7)</sup> 바움가르텐이 유사이성이라 부르

고 있는 하위인식능력들의 구조는 사물들간의 공통점을 인식하는 하위능력, 사물들간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하위능력, 감성적 기억, 시각능력, 환경능력, 비슷한 경우들의 예견, 감성적 표출능력<sup>8)</sup>으로 이루어진다.

이론적 인식은 통일성을 지향하되, 감성적인 것은 직접적인 경험으로서 삶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지향한다. 칸트(I.Kant, 1724-1804)는 자신의 학위논문인 <감성계와 예지계의 형식과 원리>(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ilis forma et principiis)(1770)에서 감성계의 다양성과 예지계의 통일성의 상호관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통일과 종합을 이루기 위한 전제는 지각의 다양성이며, 특히 그의 <순수이성비판>(1781)의 '선형적 감성론'에서 감성의 순수한 형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말한다. 시간과 공간은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며, 무엇인가를 지각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따라서 모든 인식의 기저에 놓인 것이 직관적 인식으로서의 감성적 인식일 수 밖에 없다.

바움가르텐은 감성의 원리를 옹호하면서도 감성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완성으로 이끈다. 그는 감각주의와 이성주의 사이의 대립을 넘어서고, 이성과 감성간의 새로운 생산적 종합을 꾀했다.<sup>9)</sup> 바움가르텐에게서 감성은 합리적 인식의 전단계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특수한 합리성을 구현한다.<sup>10)</sup> 감성적 인식의 학문인 에스테티카는 감성적인 표상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확실하고 의심할 여지없는 판단을 세울 수 있는 인식은 진리의 표징으로서 명석함과 판명함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예술가의 인식과 과학자의 인식을 비교해보면, 전자는 혼연하며, 후자는 판명하다. 예술가의 정서(emotion)와 감정(feeling)을 어떤 판단근거에서 인식할 수 있는가? 거기에 특유한 판단은 무엇인가?

*Kritik der Urteilskraft*, Halle an der Saale, 1923/Darmstadt, 1967, 195쪽.

- 5) A.G.Baumgarten, *Ästhetik*, Hamburg, 1988(*Aesthetica*, 제1부 1750, 제2부, 1758 간행), 제1절.
- 6) G.W.Leibniz, *Philosophische Schriften*, Hgs. v. Hans H.Holz, Darmstadt, 1985, S.14f.
- 7) A. Baumler, *Die Irrationalitätsproblem in der Ästhetik und Logik des 18. Jahrhunderts bis zur*
- 8) A.G. Baumgarten, *Metaphysica*, 3. Teil 1739, 640절, in : *Texte zur Grundlegung der Ästhetik*, hrg.v. H.R. Schweizer, Hamburg:Felix Meiner, 1983.
- 9) E.Cassirer, *Die Philosophie der Aufklärung*, Tübingen: J.C.B. Mohr, 1932, 476쪽 이하.
- 10) Heinz Paetzold, *Ästhetik der deutschen Idealismus : Zur Idee ästhetischer Rationalität bei Baumgarten, Kant, Schelling, Hegel und Schopenhauer*, Wiesbaden: Franz Steiner, 1983, 13쪽.

5) A.G.Baumgarten, *Ästhetik*, Hamburg, 1988(*Aesthetica*, 제1부 1750, 제2부, 1758 간행), 제1절.  
 6) G.W.Leibniz, *Philosophische Schriften*, Hgs. v. Hans H.Holz, Darmstadt, 1985, S.14f.  
 7) A. Baumler, *Die Irrationalitätsproblem in der Ästhetik und Logik des 18. Jahrhunderts bis zur*

### 3. 감성, 감정, 지각과 미적 판단

고유한 철학용어로서의 '감정(Gefühl)'이란 그림형제(Jakob & Wilhelm Grimm)의 사전에 의하면<sup>11)</sup> 17세기말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그후 18세기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있었으며 도덕감정이라든가 미적 감정등으로 그 말의 뜻이 비교적 분명해졌다. 미적 감정과는 달리 도덕적 감정의 근거는 도덕적 이념에서 나온다고 칸트는 보고 있다.<sup>12)</sup> 물론 고대나 중세에도 감정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은 없었으며, 다만 쾌나 불쾌와 같은心性상태나 사랑, 증오, 기쁨, 공포와 같은心性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로 희랍어 파토스(παθος) 혹은 라틴어 파시오(Passio)를 사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와 비슷한 표현이라 할 아펙투스(affectus)나 아펙티오(affectio)를 사용한 듯하다. 칸트도 아펙트(Affekt)를 정의하기를 "감각을 통해 갑자기 일어나는 것"<sup>13)</sup>이라고 말하였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넓은 의미로는心性의 움직임(Gemütsbewegungen: emotions), 좁은 의미로는 격정이나 열정(Leidenschaften: passion)의 뜻으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감각의 감각(Sinnesempfindungen: Sensation)이란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라이프니츠주의자인 에버하르트(J.A.Eberhard)에 의하면 감정이나 감각은 그 의미가 유사하지만, 18세기 후반의 특출한 심리학자라 할 테텐스(J.N.Tetens:1736-1807)<sup>14)</sup>는 감정을 감각이란 말과 구분하면서, 감정은 감각보다는 더 넓은 범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식능력의 모든 활동을 느끼는 것(fühlen), 표상하는 것(vorstellen), 생각하는 것(denken)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영혼능력을 감정, 의지, 오성으로 구분했다.<sup>15)</sup> 그에 의하면 우리는 감

정을 주관적 行爲에다, 감각을 객관적 對象에다 관련 지을 수 있는데, 이는 타당한 구분이라 여겨진다. 대상화된 감각과는 달리, 감정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변화나 인상이 느껴지는 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야기시키는 인상을 통해 대상을 직접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sup>16)</sup> 여기에 감각과 감정의 독특한 면이 있다.

19세기에 립스(Th.Lipps:1851-1914)는 인식론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세계를 지각하는 것(Wahrnehmung)을 감각이라 하고, 인간의 내적인 것의 상황이라든가 움직임을 아는 것(Gewahrwerdung)을 감정이라 하였다. 이렇듯 감정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일은 인간이 세계를 현재화하는 것이며, 현재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세계를 보는 독립적인 방식인 것이다.<sup>17)</sup> 라이프니츠, 볼프 및 그 학파도 느낌 또는 감각이란 세계를 現在化하는 것이며, 이 세계에 대한 이러한 파악을 곧 감성적 인식(cognitio sensitiva)이라고 한 바 있다. 이것은 바움가르텐이 주장하는 바, 그의 예술이론의 중심을 이루는 類似理性(analogon rationis)과도 관련되는데, 이는 바로 불합리한 것 혹은 비합리적인 것이나 있을 법한 것의 문제와 연관된다. 바움가르텐은 비합리성의 근원을 주관적 취미나 위트 등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을 판단하는 정당한 근거가 칸트에게서 마련되고 있다.

데카르트는 배고픔이나 갈증의 감각에 대해 '쌍떡망(Sentiments)'이라 했는데, 이는 라틴어 센수스(sensus)에 해당되며, 원초적인 감정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격정 혹은 열정(passion)에 대한 물음은 바로 인간에 대한 물음으로 동일시된다. 이런 입장은 칸트에게로 이어진다. 칸트에 와서야 비로소 감정이론에 대한 철학적 물음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地평이 열리며 인간에 대한 물음이 전면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인간학적인 端初가 이론의 전체적인 고찰을 위한 당연한 귀결로서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무엇이 인식한다(erkennen)는 것과 무

11) Jacob und Wihilm Grimm, Deutsches Wörterbuch, Leipzig : Vons Hirzel 1987, 2167쪽 이하. 또한 다음을 참조. U.Franke/G.Oesterle, Gefühl, Artikel,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hg.J. Ritter, Basel/Stuttgart 1974, Bd.3, 82-89쪽에서.

12) I.Kant, K.d.U., 263쪽.

13) I.Kant, K.d.U., 252쪽.

14) J.N.Tetens, *Philosophische Versuche über die menschliche Natur und ihre Entwicklung*, 2Bde, Leipzig 1777, I.167쪽 이하.

15) 같은 책, I.590쪽 : Tetens의 이러한 구분 이래로 칸트에 이르러 더욱 체계를 갖추어 발전되었다고 보인다. 다음의 도식은 그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구분 근거를 비교적 선명하게 시사해 줄 것이다

Theoretisch(이론적) Emotional(정서적) Praktisch(실천적)

Geist(정신) Denken(思维) Gemüt(心性) Wollen(意志)

Sinnlichkeit(감성)Empfinden(感覺) Gefühl(感情) Trieb(衝動)

Vgl.A.Diemer/Ivo Frenzel, *Philosophie*, Frankfurt a.M.:Fischer 1969,13쪽.

16) 같은 책, I.167쪽 이하.

17) Vgl.A.Baeumler, *Das Irrationalitätsproblem in der Ästhetik und Logik des 18.Jh.bis zur Kritik der Urteilskraft*, 1923(XD.1981), 18-64쪽.

엇을 느낀다(fühlen)는 것은 다같이 인간의 실존양식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심성활동들이기 때문이다. 줄쩌(J.G.Sulzer:1720-1779)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사유와 그 사유가 실천되는 場이라 할 행위 간에 매개적 위치를 느끼는 일(fühlen)에다 부여하고 있다. 이를테면 느낌이란 인식과 행위를 이어주는 관계적 기능을 한다는 말이다.<sup>18)</sup> 그리하여 감정에 대한 반성은 동시에 주체 자신에 대한 반성이 되는 것이다. 즉 감정과 주체란 말은 하나의 동일한 본질로 환원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감정은 감각에 의해 촉발된다 하더라도 주관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감정에 대한 이론적 작업은 감정을 객관화하는 인식의 지평을 스스로 실현하는 인간존재, 즉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실천(Konkrete alltägliche Praxis)<sup>19)</sup>의 존재에로 옮겨 놓는다. 이 때에 실천이란 느낌의 매개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며, 여기에 감정이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실천과 직접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장소란 바로 인간의 자기 경험의 場이요, 삶의 활동무대가 된다.

칸트에 의하면 경험이란 하나의 의식 안에서 여러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한, 이것들의 종합적인 결합에서 생긴다.<sup>20)</sup> 경험이란 특수한 대상에 대한 인식인 것이며, 이에 반해 일반적인 인식이란 다만 가설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칸트는 경험을 감각적 지각에 관계되는 대상의 인식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인식의 대상이란 일반적인 규칙, 즉 범주에 의해 지각이 종합되면서 성립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적인 규칙에 따른 종합에서 온 성과라 할 것이다.<sup>21)</sup> 일반적 규칙은 그것이 지각에 관계되는 한, 하나의 인식을 이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의를 요하는 점은 지각이 일반적 규칙과 이에 대한 하나의 인식을 이어주는 관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경험적 세계에 대한 인식은 시간·공간의 직관형식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다양한 知覺의 내용에 통일과 질서를 부여하는 순수오성의 범주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러한 범주 및 이것을 직관적인 지각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순수오성의 원칙'을 구성적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는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직관형식과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적 혹은 규제적 원리로서의 이념으로 구별된다.

칸트는 유기적인 통일을 지니고 있는 器官들을 이미 전제로 해서 가능한 동물적 삶과 이보다 높은 존재단계로서의 인간유기체를 구분하고 있는데, 인간유기체란 동물과는 달리 그 자체가 이미 직접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삶의 類推(ein Analogen des Lebens)"<sup>22)</sup>인 것이다. 삶이란 욕구능력의 법칙에 일치하여 행위하는 존재의 능력 일반인 것이며, 결국 삶 자체와 삶의 유추와의 구별은 곧 동물과는 구분되는 인간적인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보이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인간 감정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이는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대상이 촉발시키며 또한 대상으로 하여금 촉발되는 감각은 이윽고 우리의 감정의 내용이 되며, 이것이 미의 판단과 관련될 때에는 곧 간접적이며 반성적이 되기 때문이다. 주체와 대상 간에 놓여진 관계가 객관적이며 대상중심적이라는 사실은 대상으로서 어떤 것을 아는 것이며 제일차적 의식이라 하겠고, 제일차적인 의식으로서의 미적 판단은 행위중심적이며 반성적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삶에 대한 인식이나 인식판단이라기 보다는 삶에 대한 類推적인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유추적인 구조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가능적 근거로서 우리는 판단의 문제를 고찰해야 하고, 이에 앞서 일반적인 경험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판단의 전제인 감각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감각이란 사물을 통한 감성의 정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의식의 수용성에 대한 주관적 반응인 것이다. 감각을 통해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대상을 인식으로 가져온다. 따라서 감각은 우리 밖에 있는 사물에 대한 우리들의 표상을 주관하며, 그것은 경험적 표상의 고유한 성질을 이룬다. 그것은 "감정의 순수한 주관적 규정이거나, 객관적 感官知覺"이며, "대상을 표상하는 질료적 요소"<sup>23)</sup>이다. 이 질료적 혹은 실재적 요소에 의해서 어떤 현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란트그레베(L.Landgrebe:1902-)는 칸트의 감각을 "우리가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을

18) J.G.Sulzer, *Allgemeine Theorie schönen Künste*, 4Bde., Leipzig 1771-1774.

19) Wolfahrt Henckmann, "Gefühl", Artikel,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 Hg.v.H.Krings, München: Kösel 1973, 521쪽에서.

20) I.Kant, *Prolegomena* 제22절, Akademie Ausgabe(이하 AA로 표시), IV, 305쪽.

21) Vgl.A.Schöpf u.a., "Erfahrung", Artikel,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 München: Kösel 1973, Bd.2, 377쪽 이하에서.

22) I.Kant, *Kritik der Urteilstkraft*(이하 K.d.U.로 표시), Hamburg:Felix Meiner, 1974, 제65절, 293쪽. 삶의 유추의 문제는 삶의 追體驗으로서 19세기말 20세기초의 생의 철학과 더불어 현대미학의 다양한 문제를 해명하는 데도 인용해 봄직하다.

23) I.Kant, K.d.U., Einl, XL 11f, XLIII.

통해 표상을 얻는 능력<sup>24)</sup>으로 이해한다. 감각은 시간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시간 안에서의 현상과 관련된다.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대상을 직관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재료인 것이며, 또한 “공간 속에서 직관되어야 하는 것<sup>25)</sup>이니, 이를테면 시간과 공간에 걸쳐있는 실질적이며 실재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감각이란 우리가 시간 및 공간속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그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즉 그것은 개념이라든가 순수사유 혹은 순수직관과는 구별되는 감각의 표상이요, 경험적 직관<sup>26)</sup>이다. 이런 까닭으로 감각이란 그 본질에 있어 경험적인 실재 혹은 현실(Realität)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것은 다름아닌 대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에 미치는 영향인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세계와 접촉하는 결과를 기술해준다. 감각은 자아와 세계가 일차적으로 疏通하고 교섭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감각은 “경험적 표상들 [현상들]의 고유한 성질을 결정<sup>27)</sup>해준다. 여기에서 감각의 성질 그 자체는 경험적이며 주관적이다. 감각은 직관의 순수한 다양성과 관계하고 있으며, 현상이 비로소 일어나는 곳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감각대상을 감각함에 있어서 왜나 불쾌를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현상의 다양함은 더욱 두드러진다.

감관을 통해 심성에 와 닿은快를 향수할 때는 수동적 혹은 수용적인 데 비하여, 도덕적 성질을 지닌 행위에 대해 만족을 느낄 때는 자기 활동적이며 자발적이다. 반성으로서의 미적인 쾌는 여하한 목적이나 근본명제없이 構想력을 통해 대상을 일반적으로 파악하며, 아주 일반적인 경험에 이르도록 하는 판단력의 처리방식에 결합되어 있다. 칸트에 의하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서로 다른 표상들이 파악될 수 있는 방식이 反省인 것이며, 특수이 보편 속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판단력이다. 따라서 반성적 판단력이란 특수하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표상들을 하나의 보편적 의식안에 포함하는 능력 혹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칸트에 의하면 판단력은 쾌 혹은 불쾌 감정의 구성적 원리를 선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sup>28)</sup> 이렇게 판단력과 감정의

선천적인 내포관계는 칸트에게 있어 더 이상 환원되거나 해명될 수 없는 曠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근거에는 늘 경험에 앞서 주어지는 先天性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미적인 쾌는 누구에게 있어서나 공통의 동일한 조건에 근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식일반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조건이며, 모든 사람에게 전제된 취미를 요구하는 인식능력의 비례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비례관계는 인식능력 자체 아래 판단력의 주관적 장치에서 오는 조화가 아니라 유기체의 통일로서 객관적으로 생각된 전체적 능력 상호간의 조화이다. 판단력은 주관적 관점에서 자신에 대한 반성을 위한 법칙을 지시해주며,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을 고려하여 자연의 특수화의 법칙이라 부를 수 있다.<sup>29)</sup> 그러므로 취미와 더불어 판단하는 일은 주관적 합목적성, 이를테면 각기의 다른 사람에게도 쾌적함을 주고 그의 감정이 일반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오는 만족감이라 할 것이다.<sup>30)</sup>

반성적 판단력은 경험적 인식의 다양함을 체계적으로 정돈하고 통일하려는 것으로 ‘자연의 기술 혹은 기교(Technik der Natur)’를 수행한다. 여기서 ‘자연의 기술’이란 제반 사물이 우리들의 판단과 맺고 있는 관계를 뜻하는데, 이 안에서만이 우리는 자연의 합목적성의 이념과 만날 수 있다. ‘기술’이란 여러 법칙에 따른 하나의 체계 안에서의 자연의 합목적적인 배치 혹은 배열인 것이며, 우리는 오성 안에서 이 원리와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칸트는 판단에 관한 기술적 처리문제를 목적론적 반성행위에서 말하고 있으나,<sup>31)</sup>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은 자연과 기술간에 놓여 있는 긴장관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판단력은 그 자신의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천적인 원리를 상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특수한(혹은 경험적) 자연법칙들에는 인간의 자연법칙들을 결합하여 그 자신 가능한 하나의 경험을 이루도록 하는 법칙적인 통일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법칙적 동일은 우리들에게는 물론 밝혀지지는 않지만, 사유될 수는 있는 것이다.”<sup>32)</sup> 이것은 곧 판단력의 선천적 원리이니 즉 법칙적 동일에 의하여 우리는 다양한 자연법칙들이 경험이 아니라, ‘가능한 경험’으로 종합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24) L.Landgrebe, “Prinzip der Lehre vom Empfinden”, *Zeitsch. f. Philosophische Forschung*, 8/1984, 199쪽 이하에서.

25) I.Kant, K.r.v., A.373.

26) I.Kant, *Anthropologie*, 제8절, Anm.

27) I.Kant, *Prolegomena*, 제24절.

28) I.Kant, *Prolegomena*, 제24절.

29) Vgl.I. Kant, K.d.U., Einl, XXXIII.

30) Vgl.I.Kant, K.d.U., 제39절.

31) Vgl.H. Mertens, *Kommentar zur Ersten Einleitung in Kants Kritik der Urteilskraft*, München, 1975, 124쪽.

32) I.Kant, K.d.U., Einl, XXXIII.

한다.<sup>33)</sup> 따라서 주어진 현상들을 자연사물들에 관한 경험적 개념 아래에 포섭시키기 위해 반성적 판단력은 주어진 현상들을 도식적으로(schematisch) 다루지 아니하고 기교적으로(techisch) 다룬다. 말하자면 마치 道具처럼 오성의 지도 아래 기계적으로(mechanisch), 즉 인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하나의 체계 속에 합목적적으로 정리하는 보편적인, 그러나 동시에 否定的인 원리에 따라 기술적으로(künstlich)<sup>34)</sup> 다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능적 경험에 적합하며 우리의 판단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대상으로부터 오는 만족의 보편적인 전달 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파악은 미적 경험의 선형적 징후를 아직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에 의하지 아니하면서도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의 기술 혹은 기교의 원만한 조화를 경험 속에서가 아니라 초감성적인 假象의 이념에서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감정의 전달가능성, 즉 다른 사람과의 社交性(Geselligkeit) 안에 같이 있는 존재로 규정된다. 여기에 미적 정서를 사회속에서 보편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칸트는 이러한 전달가능성의 근거를 경험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자연적이며 사교적인 경향”<sup>35)</sup>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사교적인 경향은 공통감과 관련된다. 만일 우리가 사회에 대한 본능을 인간에게 있어 본연의 요건이라 한다면, “우리는 취미를 우리의 감정조차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체의 것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간주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자연적 경향성이 요구하는 것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sup>36)</sup>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 성향이 삶을 지탱해주는 본능적인 힘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학적 인식과 더불어 그리고 예술을 통해 심성을 가꾸며 도덕화하고 사회화한다.<sup>37)</sup> 말하자면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는 현상으로서의 환경에 접하여 이를 느낄 수 있고 감정의 사교적 전달가능성을 통해 안녕과 행복의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러한 때 감각은 그것의 경험적 연관체와 관련을 맺게 되는

데, 감각은 인식을 위한 다양한 소재를 제공해주며 충족시켜준다. 감성적 인식은 이성적 인식의 제한된 폭을 다양하게 넓혀주는 일을 한다.

#### 4. 맺는 말

감각이 지각의 실재적인 것으로서 인식에 관련될 때에, 이를 두고 칸트는 감각의 감각이라고 부른다.<sup>38)</sup>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통해 대상을 지각할 때 느끼는 것은 자발적이 아닌 수동적인 향수의 쾌감이다. 이에 반해 스스로의 활동의 결과 얻게 되는 쾌감은 어떤 법칙적인 합목적성을 現示하는 것이며, 이성을 매개로 하여 전달된다.<sup>39)</sup> 미적 취미 혹은 교양이란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共通感(sensus communis)이다. 우리는 그것을 공통의 감각에 기인한 하나의 이념으로 이해한다.<sup>40)</sup> 우리가 상식이라 일컫는 보통의 인간오성의 격률들도 취미판단의 원칙들을 해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의적이지 않으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고의 격률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은 이성의 격률이다. 그것은 스스로 사유하며 법칙을 부여하는 오성의 격률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언제나 일관성있게 사유하는 것은 이성의 격률이요, 오성의 격률이다. 다른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서의 사유는 보편적 입장에 서서 사유하는 격률인 셈이며, 이것은 판단력의 격률에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

지적 판단력보다는 미적 판단력으로서의 취미는 주어진 표상에 관하여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개념의 매개없이 선천적으로 판정하여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sup>41)</sup> 그러기에 이것은 지적 판단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요, 한갓된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을 띤 것이다. 공통감은 취미판단의 주관적 원리이긴 하지만,<sup>42)</sup> 그것은 보편적 의사소통 일반의 필연적이되 주관적인 조건이다. 우리는 공통감을 “심리학적 관찰에 입각하여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보편적인 전달가능성의 필연적인 조건으로서 상정하는 것이다.”<sup>43)</sup> 이러한 필연적인 조건은 논리학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인식의 원리에 있어서도 전제된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보편적으로 전달가능한 심성상태나 감정이란 반

33) 같은 책, Anm.

34) I.Kant, K.d.U., EEV.

35) I.Kant, K.d.U., 28쪽 이하.

36) 같은 글.

37) I.Kant, *Anthropologie* AAVII, 324쪽 이하.

38) I.Kant, K.d.U., 제39절, 153쪽.

39) 같은 책, 제39절, 154쪽.

40) 같은 책, 제40절, 157쪽.

41) I.Kant, K.d.U., 제40절, 161쪽.

42) 같은 책, 제21절, 64쪽.

43) 같은 책, 제21절, 66쪽.

드시 공통감과 연관되며, 이는 미적 판단의 필연적 조건이자 그 전제가 된다.

취미는 그 능력의 행사와 존재를 선천적 원리에 의존하는 판단능력이다. 이 때의 원리가 공통감이며, 보편적으로 전달가능한 감정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공통감이란 하나의 감정이라기 보다는 감정을 위한 능력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원리요, 규칙이며 이념이자 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통감은 한갓된,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능력을 위한 객관적인 원리가 된다. 공통감은 공동체적 이념이기 때문에, 단지 감각의 경험에 적용하는 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칸트는 취미를 감성적인 공통감(sensus communis aestheticus)이라 하고, 우리가 보통의 인간오성이라 일컫는 상식을 논리적인 공통감(sensus communis logicus)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미 및 예술과 관련하여 감성적으로 공통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미적 취미 또는 교양은 더욱 중요하다. 이는 바움가르텐이 물론 감성학의 學名을 자율적으로 부여하기는 했지만, 논리적인 것을 고급의 인식능력이라 하고 감성적인 것을 저급의 인식능력이라 한 데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의 과제는 인문학적 차원에서의 감성 문제를 원래의 공통감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과학적 객관성을 어느 정도로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일이다.

## 참고문헌

- 막스 뮐러/알로이스 할더, 철학소사전(강성위 역), 이문출판사, 1988.
- 정대현, "감성의 이성화", 정대현 외 저, 감성의 철학, 민음사, 1996.
- Baeumler, A., Die Irrationalitätsproblem in der Ästhetik und Logik des 18. Jahrhunderts bis zur Kritik der Urteilskraft, Halle an der Saale, 1923/ Darmstadt, 1967.
- Baumgarten, A.G., Metaphysica, 3. Teil 1739, 640절, in : Texte zur Grundlegung der Ästhetik, hrg.v. H.R. Schweizer, Hamburg :Felix Meiner, 1983.
- Baumgarten, A.G., Ästhetik, Hamburg. 1988 (Aesthetica, 제1부 1750, 제2부, 1758 간행)
- Cassirer, E., Die Philosophie der Aufklärung, Tübingen: J.C.B. Mohr, 1932.
- Diemer, D./Ivo Frenzel, Philosophie, Frankfurt a.M.:Fischer 1969.
- Franke, U./G.Oesterle, Gefühl, Artikel,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hg.J. Ritter, Basel/Stuttgart 1974, Bd.3.
- Goodman, N., Languages of Art, Indiana, 1976.
- Grimm, Jacob und Wihilm, Deutsches Wörterbuch, Leipzig : Vons Hirzel, 1987.
- Halder, A., Artikel, ästhetisch, in: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hrsg. v. J.Ritter, 1971, Bd.,I.
- Henckmann, Wolfahrt, "Gefühl", Artikel,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begriff, München : Kösel 1973, Bd.2.
- Kant, I., Kritik der reinen Vernunft(K.r.v.로 표시), Hamburg:Felix Meiner, 1956.
- Kant, I., Kritik der Urteilskraft(K.d.U.로 표시), Hamburg:Felix Meiner, 1974.
- Landgrebe, L., "Prinzip der Lehre vom Empfinden", Zeitsch. f. Philosophische Forschung, 8/1984.
- Leibniz, G.W., Philosophische Schriften, Hgs. v. Hans H.Holz, Darmstadt, 1985.
- Mertens, H., Kommentar zur Ersten Einleitung in Kants Kritik der Urteilskraft, München, 1975.
- Paetzold, Heinz, Ästhetik der deutschen Idealismus: Zur Idee ästhetischer Rationalität bei Baumgarten, Kant, Schelling, Hegel und Schopenhauer, Wiesbaden: Franz Steiner, 1983.
- Ritter, J., Artikel, Ästhetik, in: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hrsg. v. J.Ritter, 1971, Bd.,I
- Schöpf, A., u.a., "Erfahrung", Artikel,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 München : Kösel 1973, Bd.2.
- Sulzer, J.G., Allgemeine Theorie schönen Künste, 4Bde., Leipzig 1771-1774.
- Tetens, J.N., Philosophische Versuche über die menschliche Natur und ihre Entwicklung, 2Bde., Leipzig 1777, I.



# Philosophical Discussion on the Science of Emotion and Sensibility

## Under Aspect of Sensitive Cognition

Kwangmyung Kim

(Soongsil University)

*Abstract* In an urgent situatio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method, we feel eagerly the necessity of discussing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the science of emotion and sensibility'. If human cognitive faculties lie in split dualism of sensibility and reason,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whole image of just recognition. Therefore, it is so important that we should pursue the interrelational context between reason and sensibility through the rationalization of sensibility and the sensibilization of reason. Both reason and sensibility constitute the immanent system of knowledge. The science of sensitive cognition has lower cognitive faculty in contrast to the science of logic, but common sense plays a role to expand the world knowledge which the logical cognition can not fully accomplish. Especially the aesthetic judgment supplements the logical judgment. Furthermore, it is our task to expand the problem of sensibility from the level of humanities on the ground of the communal sense to the scientific objectivity, which is based on the observation of natural appearances.